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9:25-33(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25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바로 그 곳에서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27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28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속히 이루실 것이다."

29 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30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31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2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추구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 이것은 성경에 "보라!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호세아 2:23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 \_\_\_\_\_

-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다고 소개합니까? (30절)

→ \_\_\_\_\_

-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소개 하나요?(32절)

→ \_\_\_\_\_

-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경험이 있나요?

→ \_\_\_\_\_

- 본문에서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행위로 추구하다 장애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과 행위 중 어느 쪽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의존할 때 겪는 어려움이나 좌절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_\_\_\_\_

-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새롭게 다질 수 있을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롬 9:25-33(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서는 본장에서,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심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며,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근본 원인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지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교만하고 오만한 죄,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러 결단을 통해 삶을 설계해 나갑니다. 우리의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과 결단하는 자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선택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칼비니즘 주의'로 치우치면, 자신들의 책임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방관자적 태도로 선교가 방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주의'로 치우치다 보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존재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께 택함 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6. 기도